

<http://dx.doi.org/10.17703/JCCT.2022.8.5.251>

JCCT 2022-9-30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eing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양현주*, 변은경**

Yang Hyun Joo*,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2개 대학 간호대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은 3.78 ± 0.61 점이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그릿($r=.469$, $p<.001$), 간호전문직관($r=.614$, $p<.001$), 간호사 이미지($r=.552$,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은 그릿($\beta=.321$, $p<.001$), 간호전문직관($\beta=.385$, $p<.001$), 간호사 이미지($\beta=.165$, $p=.022$)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7.3%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의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f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in COVID-19 pandemic situ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320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was 3.78 ± 0.61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llege life adaptation with department ($F=9.932$, $p<.001$), number of friend ($F=5.681$, $p<.001$), close professor ($t=3.739$, $p<.001$),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grit ($r=.469$,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r=.614$, $p<.001$), nurses' image ($r=.552$, $p<.001$). The factors affecting resilience of the study subjects were grit ($\beta=.321$,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beta=.385$, $p<.001$), nurses' image ($\beta=.165$, $p=.022$),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47.3%.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in order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in the COVID-19 pandemic.

Key words :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

*정회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7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8일

Received: July 31, 2022 / Revised: August 25, 2022

Accepted: September 8, 2022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코로나19(COVID)와 같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andemic)에 발생하면서 급변하는 환경변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자기 건강 관리 및 새로운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다[1] 코로나 시대로 인해 교육환경도 급격한 변화로 대면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고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은 학습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2]. 또한 대학생은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받고[3] 대학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성숙과 적응[4]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제한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인간생명을 다루는 학문을 연마하기 위하여 간호학 전공지식 습득 외에도 임상실습을 통해 새로운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위기상황, 환자 및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긴장감 및 무력감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학과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5]. 이러한 간호대학생은 코로나 시대에 간호전문직에 대한 혼란과 업무에 대한 불안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실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간호대학생들은 불안과 함께 높은 수준의 위험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감염병 재난 속에서 간호와 돌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기존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노력으로 재난을 인간 삶의 일부로 인식하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응 및 복구 중심으로 회복탄력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7]. 회복탄력성은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 상황에 대처하고 정상적인 적응을 통해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으로[8]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외부에서 오는 충격 및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9].

회복탄력성과 함께 개인내적 역량으로 그릿(Grit)이

있다. 그것은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으로[10]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목표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 즉, 자신의 목표와 관심,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내적상태를 의미한다[11]. 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것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1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의 증진을 위해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한 간호교육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간호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적용하여[13]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사들의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직분에 관한 직업인 견해이다[14].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를 높이며[15-16],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 등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형성되고, 실무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그것과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어[18]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 요인으로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향후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호사 이미지는 개인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간호나 간호사의 모습에 대한 신념, 생각, 느낌의 총합으로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정체성과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 특성이다[19]. 긍정적인 힘에 속하는 회복탄력성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증진되며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데 영향을 준다[20]. 간호대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간호사 이미지로 적용되면서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통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

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3) 연구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4)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 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2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22년 5월 9일에서 5월 27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 중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소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0, 검정력 .95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319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350부를 배부하였고, 329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이 불성실한 9부를 제외한 3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그릿

대상자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Duckworth 등[10]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 Sohn[21] 등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노력의 꾸준함 6문항, 관심의 일관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끈기와 열정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Duckworth 등[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83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Soh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1로 나타났다.

2) 간호전문직관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Yeun, Kwan과 Ahn[22]이 개발하고 Lee[23]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eun, Kwan과 Ahn[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 Lee[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3) 간호사 이미지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ang 등[24]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전통적 이미지 6문항, 간호직 전망 3문항, 사회적 이미지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Kang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났다.

4) 회복탄력성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Reivich와 Shatté[25]가 개발한 도구를 Kim[20]이 번역하고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회복탄력성 도구(KRQ-53)를 재수정한 Bae[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으로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각 하위영역은 9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ae[26]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통제성 Cronbach's α 는 .86, 사회성 Cronbach's α 는 .86, 긍정성은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통제성 Cronbach's α 는 .91, 사회성 Cronbach's α 는 .90, 긍정성은 Cronbach's α 는 .91이고, 전체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릿, 간호 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일반적 특성으로 '여학생' 274명(85.6%), '남학생' 46명(14.4%)으로 총 320명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 118명(36.9%), '21-24세' 121명(37.8%), '25세 이상' 81명(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93명(29.1%), 2학년 94명(29.3%), 3학년 65명(20.3%), 4학년 68명(21.3%)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보통' 165명(57.2%), '만족' 114명(25.5%), '불만족' 14명(17.3%)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변화적응은 '적응 잘함' 214명(66.9%), '보통' 88명(27.5%), '적응 못함' 18명(5.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ex	Male	46	14.4
	Female	274	85.6
Age (year)	≤20	118	36.9
	21-24	121	37.8
	≥25	81	25.3
Grade	1 st	93	29.1
	2 nd	94	29.3
	3 rd	65	20.3
	4 th	68	21.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14	25.5
	Moderate	165	57.2
	Unsatisfaction	14	17.3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Good	214	66.9
	Moderate	88	27.5
	Bad	18	5.6

2.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

대상자의 그릿 평균 3.32±0.46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4.07±0.61점, 간호사 이미지 평균 3.99±0.59점, 회복탄력성 평균 3.78±0.61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정도

Table 2. Degree of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N=320)

Variable	M±SD	Min	Max
Grit	3.32±0.46	2.17	5.00
Nursing professionalism	4.07±0.61	1.00	5.00
Nurses' image	3.99±0.59	1.00	5.00
Resilience	3.78±0.61	1.00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F=3.120, p=.046), 전공만족도(F=27.212, p<.001), 환경변화적응(F=36.561, p<.001)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불만족'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환경변화적응은 '적응 잘함'이 '보통', '적응 못함'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M±SD	t/F(p) scheff's
Sex	Male	3.69±0.73	-1.010 (.313)
	Female	3.79±0.59	
Age (year)	≤20	3.85±0.63	3.120 (.046)
	21-24	3.80±0.58	
	≥25	3.63±0.60	
Grade	1 st	3.76±0.61	.063 (.979)
	2 nd	3.78±0.64	
	3 rd	3.75±0.50	
	4 th	3.80±0.67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a	4.04±0.61	27.212 (<.001) a>b, a>c
	Moderate ^b	3.57±0.52	
	Unsatisfaction ^c	3.51±0.59	
Adaptation to environmental change	Good ^a	3.96±0.55	36.561 (<.001) a>b, a>c
	Moderate ^b	3.44±0.49	
	Bad ^c	3.23±0.77	

표 4.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N=320)

Characteristics	Grit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s' image	Resilience
	r(p)			
Grit	1			
Nursing professionalism	.290(<.001)	1		
Nurses' image	.218(<.001)	.625(<.001)	1	
Resilience	.469(<.001)	.614(<.001)	.552(<.001)	1

표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resilience(N=32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084	.225		.373	.709
Grit	.428	.057	.321	7.564	<.001
Nursing professionalism	.399	.076	.385	5.248	<.001
Nurses' image	.166	.072	.165	2.299	.022
Adjuste R ² =.473 F=96.510 p<.001					

4.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대상자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그릿($r=.469$, $p<.001$), 간호전문직관($r=.614$, $p<.001$), 간호사 이미지($r=.552$, $p<.001$)와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사 이미지는 그릿($r=.218$, $p<.001$), 간호전문직관($r=.625$,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은 그릿($r=.290$,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307-.915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93-3.253으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978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96.510$,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은 .473으로 회복탄력성을 47.3%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beta=.321$, $p<.001$), 간호전문직관($\beta=.385$, $p<.001$), 간호사 이미지($\beta=.165$, $p=.022$)로 나타났다(Table 5).

IV. 고 찰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회복탄력성은 3.78 ± 0.61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57점으로 나타난 결과[27]보다는 높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78점으로 나타난 결과[28]와는 유사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49점으로 나타난 결과[29],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평균 3.56점으로 나타난 결과[3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중에도 실습 관련 수업은 대면수업이 이루어지고, 임상실습에 참여하게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담감도 높지만 회복탄력성은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며 학습, 실습 등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통해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서 연령, 전공만족도, 환경변화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7][29]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임상실습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그릿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3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간호전문직관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27]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간호사 이미지와의 관계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신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이 간호사 이미지에 따라 차이가 난 결과[31]를 통해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반복연구를 통해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노력을 뜻하는[10] 그릿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공 교과목과 실습 및 실습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확고한 이념과 목표를 갖도록 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과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고[22]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필요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다양한 감염병 상황에서도 간호대학생이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릿, 간호전문직관, 간호사 이미지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여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H.Y. Jung, "The convergence influence of life stress, depression and ego resilience on college life adaption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7, pp. 259-268, 201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6.14.7.259>
- [2] S.H. Kim, and S.H. Lee, "The influences of job-seeking stres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The Journal of*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7, No. 1, pp. 63–72, 2015. DOI: <http://doi.org/10.7475/kjan.2015.27.1.63>
- [3] S. Cohen, and H.M.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Vol. 13, No. 2, pp. 99–125, 1983. DOI: <https://doi.org/10.1111/j.1559-1816.1983.tb02325.x>
- [4] I.S. Choi, and E.J. Joo, “Influences of college life adjustm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leadership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6, pp. 145–173, 2016.
- [5] Y.K. Kwak,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5, pp. 2178–2186, 2021. DOI: <http://doi.org/10.5762/KAIS.2013.14.5.2178>
- [6] J.H. Park, J.H. Kim, H.J. Lee and P.R. Kang, “The relationship of anxiety, risk perception, literacy, and compliance of preventive behaviors during COVID-19 pandemic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1, pp. 48–59, 2021. DOI: <http://doi.org/10.12925/jkocs.2021.38.1.48>
- [7] D.W. Lee, and G.H. Kwon,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disaster resilience: focused on on natural disaster”,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ol. 26, No. 2, pp. 475–509, 2017.
- [8] S.F. Cheng, C.W. Cheng, W.C. Hsieh, M.C. Chi, S.J. Lin, and Y.T. Liao, “Effect of individual resilience intervention on indigenous people who experienced Typhoon Markot in Taiwan”, *The Kaohsiung Journal of Medical Sciences*, Vol. 28, No. 2, pp. 105–110, 2012. DOI: <https://doi.org/10.1016/j.kjms.2011.10.015>
- [9] H.S. Kim, and M.S. Kim, “The impact of disaster victim’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4, No. 4, pp. 841–854, 2019. DOI: <http://doi.org/10.22143/HS S21.10.4.59>
- [10] A.L. Duckworth, C. Peterson, M.D. Matthews, and D.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2007. DOI: <http://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1] J.A. Yu, E.A. Joe, and A.R. Lee, “Mediating effects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barrier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10, pp. 973–994, 2019. DOI: <http://doi.org/10.22251/jlcci.2019.19.10.973>
- [12] J.W. Han,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the career adaptabil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 27, No. 4, pp. 5–27, 2018. DOI: <https://doi.org/10.35605/jss.2018.12.27.4.5>
- [13] E.G. Oh, “Perspectives on nursing profession for a post-COVID-19 New Norma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32, No. 3, pp. 221–222, 2020. DOI: <http://doi.org/10.7475/kjan.2020.32.3.221>
- [14] D. Weis, and M.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 32, No. 2, pp. 201–204, 2000.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x>
- [15] K. Hallin, and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1, No. 1, pp. 62–70, 2008.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 [16] Y.S. Moon, and S.J. Han,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 72–79,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72>
- [17] Y.M. Kwon, and E.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 285–292, 2007.
- [18] J.H. No, and E.Y. Kim,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 4, pp. 519–526, 2021. DOI: <http://doi.org/10.17703/JCCT.2021.7.4.519>
- [19] P.A. Kalisch, and B.J. Kalisch, “Careerist: toward a new ideal, the changing image of the nurse,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Vol. 48, No. 2, pp. 125–133, 2013.
- [20] J.H. Kim, “*Recovery resilience. A pleasant secret that turns trials into luck*”, Goyang: Wisdom House, 2011.

- [21]S.R. Lee, and Y.W. Sohn, “What are the strong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deliberate practice and gri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10, No. 3, pp. 349-366, 2013.
- [22]E.J. Yeun, Y.M. Kwan, and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3]S.R. Lee, “*Nurse image, satisfaction of major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eoul, 2011.
- [24]H.Y. Kang, M.H. Go, J.J. Yang, and S.M. Kim, “Nurses’ image perceived by academic and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3, No. 6, pp. 792-801, 2003. DOI: <https://doi.org/10.4040/jkan.2003.33.6.792>
- [25]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New York: Broadway Books. 2003.
- [26]H.R. Bae,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yonggi, 2012.
- [27]K. Park, M. Mi, and S.H. Kim, “Effects of resili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21, Vol. 12, No. 4, pp. 1361-1374, 2021. DOI: <http://doi.org/10.22143/HSS21.12.4.97>
- [28]J.K. Kim, and K.H. Yoo, “Effects of self-esteem on nursing students’ resilience”,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6, No. 3, pp. 261-269, 2019. DOI: <https://doi.org/10.5953/JMJH.2019.26.3.261>
- [29]I.H. Chun, and J.Y.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elf-efficacy, resilience and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Vol. 6, No. 1, pp. 49-60, 2016.
- [30]K.H. Kyoung, and M.O. Cho,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6, pp. 363-371, 2020.
- [31]K.H. Kim, S.M. Kim, and M.J. Kwon, “Factors affecting the clinical competence of new nurses”,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18, No. 1, pp. 109-118, 2020. DOI: <https://doi.org/10.22678/JIC.2020.18.1.109>